

‘죽음의 환풍구’ 광주 도심 곳곳에 방치

지하철 1호선 주변에 100여개 아파트·대형건물에도 설치 안전기준 없이 아이들 놀이터로 광주시, 긴급 종합점검 나서

광주 도심에도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환풍구들이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판교의 야외 공연장에서 지하 주차장 환풍구 붕괴로 큰 인명피해가 났는데도, 이들 환풍구 주변에는 안전사고를 경고하는 문구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광주 지하철 1호선 주변에 설치된 환풍구 100여곳은 초등학교도 쉽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높이가 낮았지만, 안전시설은 전무했다. <관련기사 3·6면>

광주일보 취재팀은 판교 사고 직후인 18일과 1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와 서구 양동시장 일대 등 도심 곳곳의 환풍구들을 둘러봤다. 보도에 돌출된 지하철 환풍구의 크기는 높이 50cm~1m, 가로 2.5~3m, 세로 5~13m로 다양했다.

환풍구 상부는 자물쇠로 잠긴 채 3cm 두께의 은색 철제 구조물만 덩그러니 놓여있었고, 그 밑에는 비교적 얇은 철사망이 덮여 있었다. 하지만 은색 철제 구조물을 지탱하는 별도의 지지대는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양동시장 역 앞 지하철 환풍구는 인근 상인의 민원으로, 광주에선 유일하게 오름 방지용 투명펜스가 설치돼 있었다. 인근 상인은 “투명펜스가 설치되기 전까지 환풍구 위는 초등학교생들의 놀이터였다”고 말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하철뿐 아니라 아파트와 대형건물마다 환풍구가 설치돼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관리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 관리·감독은커녕 현황 파악조차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 김연정(여·38·광주시 동구 지산동)씨는 “얼마 전 9살, 11살된 두 아들이 환풍구 위를 뛰어던 기억이 있다”면서 “경기도의 사고를 접하고는 등골이 오싹



판교 참사와 같은 시각 ... 아찔한 광주

지난 17일 오후 5시5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YMCA 앞에 아이들 그룹 비스트의 용준형을 보기 위해 여학생 등 500여 명이 몰렸다. 이 가운데 30여명은 지하 깊이 10여m의 금남로 지하상가 입구 난간에 올라 30분 동안 용준형을 기다리는 등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보는 이들을 불안하게 했다.

해졌다”고 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지하철 20개 역에는 135개 환풍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환풍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은 없다. 또한 환풍구의 철제 덮개인 ‘스틸 그레이트(steel grating)’는 맨홀을 덮는 뚜껑처럼 여닫는 용도이지만 이를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을 정하는 법규조차 없다.

더욱이 지하철 역사를 제외하고는 도심 곳곳에 설치된 환풍시설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전남 지역도 환풍구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대적인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

는 이유다.

이와 관련 윤장현 광주지사는 이날 오후 금남로 5가역에서 문화전당역까지 1.3km 구간의 지하철 환풍구 등을 긴급 점검한 뒤 “환풍시설을 물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시설물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광주 자체적으로라도 대형사고가 나면 땀질식으로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기용·백희준기자 pboxer@

판교 추락사고 안전관리 부실...주관사 등 20곳 압수수색

16명 사망·11명 중경상

지난 17일 오후 5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광장에서 관람객 27명이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의 환풍구 철제 덮개 위에서 걸그름 공연을 보던 중 덮개가 붕괴되면서 20m 아래

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윤모(35)씨 등 16명이 숨지고 김모(여·20)씨 등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환풍구 주변에는 관람객 진입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이 없었고, 많은 관람객들이 쉽게 환풍구 철제 덮개 위로 올라갔다. 관람객이 추락한 환풍

구는 안전점검 규정이나 기준이 없는 탓에 소방당국과 자치단체의 안전시설 및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18일 오전 공연행사 안전대책을 계획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 오모(3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를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9일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 등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형호기자 khh@

공무원연금 41% 더 내고 34% 덜 받는다

정부안 공개, 2016년부터 ... 전공노 “절대 수용불가” 반발

정부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제도개혁 시안을 17일 공개했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은퇴자의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고,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하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 초안은 지난달 22일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이 제시한 개혁방안의 골격을 유지한 채 기여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고액 수령자’를 줄이는 조치가 추가됐다.

정부안 초안을 보면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3%포인트 오르고 10년에 걸쳐 재직기간 1년에 주어

지는 수령액 증가 폭이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2016년 이후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납입액과 수령액이 적용된다.

특히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는 학계의 기존 개혁방안에 더해 평균수령액의 2배 이상인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무원단체는 정부안을 ‘계약안’으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법의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안을 포장만 바꾼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20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워도 다시한번?

KIA 선동열 감독 재계약 2년 10억6000만원 ‘파격’

‘선동열호’가 2년간 항해를 계속한다.

KIA 타이거즈가 19일 선동열 감독과 2년간 총액 10억6000만원(계약금 3억원, 연봉 3억8000만원)에 재계약을 끝냈다. <관련기사 2면>

선 감독은 2012년 친정팀에 부임한 뒤 5위-8위-8위의 성적을 내는데 그쳤지만 구단의 재신임으로 2년 더 KIA의 지휘봉을 잡게 됐다.

선동열 감독은 “무엇보다 지난 3년간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해 타이거즈를 응원해 주신 많은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재신임해 준 구단에 감사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백업 육성과 수비 강화 등 기초가 튼튼한 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계약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한폭탄’ 한빛원전 ▶7면



도시재생
도쿄 롯본기 힐스 ▶18면

광신대학교 설립
60주년 기념 감사예배
일시: 10월21일(화) 오전10시 40분
장소: 광신대 은혜관 3층 대예배실
문의: 062)605-1000



나의 취향에 맞춘 단 하나를 찾다.
The New A-Class

